

삼원적 사회관계 중의 미완성 관계들의 예언에서의 균형효과, 불확실감 및 예언이유들

洪 大 植
誠信女子大學校 心理學科

삼원관계들 중의 미완성된 관계들의 예언에 관한 균형이론이 수정되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미완성된 관계들의 예언에 있어서 正負의 부호들의 성질들이 다르다고 가정되었으며, 두 개의 +구조들은 접근과 관심을 일으키고 따라서 가장 큰 균형효과와 가장 적은 불확실감을 일으킬 것이며 두 개의 -구조들과 +와 -가 혼합된 구조들은 회피, 무관심 및 갈등을 일으키고 따라서 서로 비슷하게 균형효과가 작고 불확실감이 클 것이라는 가설이 세워졌다. p/O , p/X 및 O/X 관계들의 예언들은 가설과 일치되는 패턴을 보였다. 피험자들에 의해 제시된 예언이유들도 가설과 일치되었다. 피험자들은 부분구조들의 예언에 있어서, 균형요인 이외에도 P/X 관계와 O/X 관계에 주목하였으며, 정보부족과 의견차이의 가능성에 의해서 많은 불확실감반응을 나타냈다. 피험자들의 예언이유들의 보고에서 균형요인의 반응비율은 .39에서 .15의 범위이었다. $-p/O$ 관계에 기초된 Newcomb(1968)의 非均衡의 개념이 $-P/X$ 와 $-O/X$ 관계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사되었고, 미완성된 관계의 예언들에서 不確實感의 작용에 관한 집중적 분석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Heider(1946, 1958)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인관계의 기본 요소들은 각각자(P), 타인(O) 및 이 둘에 관련된 어떤 대상(X)이나 인물(Q)이다. Heider(1958)에 의하면, 삼원관계들의 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三元關係는 세 개의 모든 관계가 正的이거나 두 개의 관계가 負的이고 한 개의 관계가 正的일 때에 균형되어 있다. 두개의 관계가 正的이고 한 개의 관계가 負的일 때에 불균형이 생긴다. 세 개의 負的 관계들의 경우는 애매하다”(p. 176). 그 후에 Cartwright와 Harary(1956)는 대인관계의 構造들의 균형을 수학적 부호들의 積에 의해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위의 세 개의 負的 관계들은 불균형된 구조이다. 이들의 정의는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예: Newcomb, 1968, 1971, 1978). 한편, 홍대식(1985)은 Heider(1958)가 주장한 知覺된 社會關係들의 同質性 指向의 원리를 기

초로 해서, 三元關係들은 각각 P의 입장에서 볼 때에 P와 O간의 관계(P/O관계)와 P와 O간의 태도일치 여부의 각각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Cartwright와 Harary(1956)의 정의이든 홍대식(1985)의 정의이든 간에, 8 종류의 三元關係들의 균형 여부는 동일하게 분류된다. 즉, P/O, P/X 및 O/X의 세 개의 관계들의 형태에서 +++, +--, --+, 및 ---의 구조들은 인지적으로 균형되어 있고, +-+, -+-, 및 -+-의 구조들은 불균형 되어 있다.

한편 三元關係들에서 관련이 되고 있는 正負 부호의 심리적 성질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예컨대, Desoto와 Kueth(1959)는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있다는 최소의 정보조건에서 피험자들이 부적관계 보다도 정적관계를 더 높은 확률로서 추정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Willis와 Burgess(1974)는 P/O관계나 O/P관계를 바탕으로 한 O/p관계나 P/O관계의 추측에서 정적 관계의 강도와 부적 관계의 강도의 상이한 효과를 발견하였다. 즉, 부적 관계의 강도 변화는 정적 관계의 강도 변화보다도 추측에서 영향이 더 적었으며, 피험자들은 강한 惡感관계의 회피를 나타냈다. 또한 홍대식(1980 a, 1980 b, 1984)과 김지환(1982)의 연구들에서는 P/O와 P/X 관계들의 호오강도를 변화시켜서, 否定性(negativity) 효과를 발견하였다. 즉, 부적 관계의 강도 증가는 정적 관계의 강도 증가보다도 상황의 유쾌도와 안정도의 평정들이나 P/O나 O/Q 관계들의 예언에서 더 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 직접 관련해서 정적 관계보다도 부적 관계가 포함된 삼원관계들에서 균형이론과 부합되지 않는 결과들이 얻어지고 있다. 예컨대, Ohashi(1964)의 연구에서 두 관계들이 --일 때에 +쪽으로의 완성보다도 약간 -쪽으로의 완성이 발견되었다. Granberg와 Brent(1974)의 연구에서는 좋아하는 대통령후보(즉, P/O)의 상황에서는 P/X와 O/X간의 정적 상관($r = +.55$)을 얻었지만, 싫어하는 후보자의 상황에서는 영에 가까운 상관을 발견하였다. 이와 동일한 결과가 Wiest(1965)에 의해서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적 P/O관계가 포함된 상황들에 대한 피험자들의 無關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해석되고 있다(Crockett, 1982 참조). P-O-Q 패턴들의 유쾌도 평정을 사용한 Price, Harburg 및 Newcomb(1966)의 연구는 -P/O의 상황들에서는 균형과 불균형의 구분이 애매하고 유쾌와 불쾌의 중간의 평정들이 많았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들이 -P/O관계의 상황들이 사람들에게 타인(O)의 감정에 대한 불확실감(uncertainty)을 크게 일으키고, O에 대해 양면감정(ambivalence)을 크게 일으키고, O가 포함된 상황에 대해 非關與(disengagement)를 크게 일으키는 데에 기인

된다고 주장하였다(또한 Newcomb, 1968 참조). 그러나, Newcomb 등 (Price, Harburg 및 Newcomb, 1966; Newcomb, 1968)의 연구에서 $-P/O$ 관계가 포함된 상황들이 非均衡으로 분류된 반면에 동일한 대인관계인 $-P/Q$ 의 상황들이 非均衡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잘 설명되고 있지 못하다.

Price, Harburg 및 Newcomb(1966)의 연구에서는 三元關係들 중에서 P/O 관계에만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正과 負의 관계들의 성질 차이는 P/O 관계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여러 자료들은 $-P/O$ 관계 이외의 $-P/X$ 또는 $-P/Q$ 관계와 $-O/X$ 또는 $-O/Q$ 관계가 포함된 상황들에서도 不確實感이나 無關心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방금 인용된 Price, Harburg 및 Newcomb(1966)의 자료에서 $-P/O$ 관계가 포함된 네 개의 非均衡된 상황들에서의 유쾌와 불쾌의 중간의 반응들은 두 개 이상의 $-$ 관계들이 포함된 $---$ (38%), $+-$ (22%) 및 $--+$ (39%)의 상황들이 한 개의 $-$ 관계가 포함된 $+++$ (15%) 상황 보다도 더 많았다. $-$ 관계가 갖는 독특한 영향은 $+P/O$ 관계의 상황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P/O , P/X 및 O/X 관계가 $+++$ 와 $+-$ 인 상황들은 이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P/O 관계의 긍정도(positivity), 태도의 일치도(agreement) 및 균형(balance)의 요인들의 면에서 동질적인 관계로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대다수의 연구들(예: Jordan, 1953; Rodrigues, 1967; Aderman, 1969; Crano와 Cooper, 1973; Insko, Sonnger 및 McGarvey, 1974; 홍대식, 1980 a, 1980 b.; 장영수, 1984)에서 $+++$ 의 상황이 $+-$ 의 상황 보다도 더 유쾌하고 안정되고 기대되는 것으로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P/X 와 O/X 의 관계들의 負的 屬性 자체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험자들에게 三元關係들 중에서 두 개의 관계들을 제시하고 나머지 한 개의 관계를 예언케 한 Fuller(1974)의 연구에서도 $-$ 관계가 포함된 組合들이 균형효과가 더 적었다. 즉, 하나나 둘의 $-$ 관계들이 포함된 부분구조들이 $-$ 관계가 없는 부분구조들 보다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중성적 반응을 유의하게 더 많이 보였다. 그러나 한 개의 $-$ 관계와 두 개의 $-$ 관계들을 포함하는 구조들 간에는 중성적 반응의 빈도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부적 관계가 포함된 상황들에 대해서 중성적 반응이 많은 이유에는 앞에서 지적된 無關心의 요인의 작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요인만으로는 Fuller(1974)의 자료에서 $---$ 구조들과 $+-$ 나 $-+$ 구조들 간의 균형반응이나 중성적 반응의 유사성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나 -$ 의 부호들을 誘引價(valence)의 측면에서 봄으로써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 구조는 두 개의 정적 유인가를 갖는 상황으로서 접근이나 관심의 반응들을 강하게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 구조는 두 개의 부적 유인가를 갖는 상황으로서 회피나 무관심의 반응들을 강하게 일으킬 것이다. 한편, 한 개의 +와 한 개의 -의 구조들은 접근과 회피 반응들을 동시에 일으키는 갈등상황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에서는 한 개의 -관계에 의해서 생긴 회피나 무관심 반응과 +와 -유인가들의 모순에 의해서 생긴 부정적인 갈등이 합쳐져서 두 개의 -관계들에 의해 생긴 심리적 상태와 비슷한 회피나 무관심을 일으킬 것이다. 아마 두 개의 -관계들의 상황은 상황적 압력이 없다면, 회피나 무관심 반응을 유발시키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실험에서 제시되는 과제들 즉, 상황의 평정들이나 예언들은 그러한 관계들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개의 - 구조들의 상황과 +-나 -+의 구조들의 상황은 심리적으로 유사한 구조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의 구조들은 접근과 관심을 갖는 상황으로서 가장 큰 균형효과를 갖는 동시에 가장 적은 불확실감을 갖을 것이다. 한편, --의 구조들이나 -+ 또는 +-의 구조들은 모두 무관심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들로서 서로 비슷하게 균형효과가 약화되고 무관심 반응들이 많을 것이다. 본 연구는 Fuller(1974)가 사용한 방법을 사용해서 미완성된 관계의 예언에서 상기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피험자들에게 삼원관계 중의 미완성된 관계들을 예언케 하는 연구들에서의 기본 가정은 사람들이 균형원리에 따라 관계들을 예언할 것이라는 것이다. 즉, Heider(1958)와 그 이후의 균형모형들(예: Wiest, 1965; Feather, 1967; Wellens와 Thistlethwaite, 1971 a, 1971 b)은 사람들이 균형원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未完成된 관계들을 완성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三元關係들의 유쾌도, 긴장도, 안정도 및 기대도의 평정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균형효과 이외에도 P/O관계의 肯定的(positivity)와 태도의 일치로(agreement)가 작용되며(홍대식, 1982 참조), 다소 미약하기는 하지만 P/X와 O/X관계의 正負 자체도 작용된다(예: Insko, Songer 및 McGarvey, 1974)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미완성된 관계의 예언에서도 균형요인 이외의 여러 요인들이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未完成된 관계들의 예언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평정연구들과는 달리 균형효과 이외의 요인들을 연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아마 균형요인 이외의 요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한 데에 있을 것이지만, 자료분석에서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실험설계 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피험자들에게 미완성된 관계들을 예언케 하고서 그 예언의 이유들을 직접 질문하는 것이다. 미완성된 관계들의 예언에

서 작용되는 요인들은 균형요인 이외에도, 첫번째와 두번째 관계의 각각의 요인들과 예언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 또는 상황에 대한 불확실감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피험자들에게서 직접 얻어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負的 關係들이 포함된 부분구조들은 正的 關係들이 포함된 부분구조들 보다도 더 큰 不確實感을 일으킨다는 가설을 검증하고, 미완성된 관계들의 완성에서 균형 이외의 요인들의 효과를 피험자들의 예언이유들에 대한 직접적 반응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方 法

피험자 성신여대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72 명의 1학년 학생들이 본 연구의 피험자가 되었다.

재료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삼원관계 중의 미완성된 관계를 예언케 한 Fuller(1974)의 방법에 따라 P/O, P/X 및 O/X 관계들 중에서 두 개의 조합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한 관계를 예언케 하였다. 피험자들에게 “나” 자신, 어떤 다른 사람(O) 및 어떤 중요한 대상(X)을 가정하게 하였으며, 다른 사람 O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과 비슷한 연령의 동성을 가정케 하였다.

각 부분구조의 상황은 반응지의 맨 위에 예컨대, “나는 어떤 것(X)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O)은 X를 좋아한다.” 식으로 두 줄의 문장으로 네모 칸 안에 제시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P/O, P/X 및 O/X관계의 각각에 대해 +와 -의 관계의 조합들에 의해 네 개가 있게 되었다. 피험자들의 P/O관계에 대한 예언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O)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것 같습니까?”를 물었다. P/X와 O/X 관계들에 대한 예언은 위의 질문 중에서, “나는 X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O)은 X에 대해서”라는 귀절을 대치시켜서 얻어졌다. 예언반응의 답지는 (가) 좋아할 것이다. (나) 싫어할 것이다. 및 (다)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겠다로 이루어졌다. Fuller의 연구에서는 중간 반응을 얻기 위해서 위의 (다)의 범주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감의 측정에 초점을 두어서 (다)의 범주와 같이 “모르겠다”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험자들의 12개의 각 상황에 대한 반응의 理由들을 얻기 위해서 위의 질문 다음에 “위의 답지에 대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반응범주들은 각각의 부분구조의 첫번째 관계, 두번째 관계 및 균형효과의 영향을 알아보는 범주들로 구성되었고, 기타의 이유들은 네번째 범주에서 기입하

도록 하였다. 예컨대, P/O 관계의 예측에서의 반응범주들은 다음과 같았다 : (가) 내가 어떤 것 (X)을 좋아하므로, (나) 다른 사람(O)이 X를 좋아하므로, (다) 나와 다른 사람(O)이 X에 대해 태도가 일치하므로 (라) 기타 (기입하여 주십시오). P/X관계와 O/X관계의 예언에서 (다)의 범주의 균형효과는 예컨대, “좋아하는 다른 사람(O)과 X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어야 되므로”나 “좋아하는 다른 사람(O)은 X에 대해 나와 의견이 일치되어야 되므로” 식으로 조사되었다.

피험자들은 교실에서 집단적으로 조사지에 응답하였다.

結 果

피험자들의 부분구조들에 기초된 P/O, P/X 및 O/X 관계들의 예언방향과 예언이유에 관한 비율들은 표 1, 2 및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P/O관계의 예언에서 +P/X와 +O/X의 구조의 불확실감의 비율(.29)은 -P/X와 -O/X의 구조의 불확실감(.51)보다 더 작았으며, 균형반응의 비율도 각각 .68과 .29이었다. 또한 두 개의 -구조와 한 개의 -구조들의 균형반응의 비율들과 불확실감반응 비율들은 비슷하였다. P/O관계의 예언이유들에서 균형요인의 영향은 ++구조(.39)가 --구조(.22)보다 더 컸다. 그리고 두 개의 -구조와 한 개의 -구조에 대해 균형요인의 영향은 거의 동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균형반응과 불확실감반응의 비율들의 면에서 지지되었다. 불확실감 반응을 일으킨 요인들은 주로 예언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의견이나 태도차이의 가능성에 기인되었다. 부수적으로, 두 개의 -구조에서 무관심의 요인(.08)이 나타났다. 피험자들의 예언이유에 관한 반응들은 P/O관계의 예언에서 균형요인 이외의 요인들이 크게 작용함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들 요인의 집중적 연구의 필요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P/X관계의 예언에서, 표 2와 같이 +P/O와 +O/X의 구조의 불확실감의 비율(.19)은 -P/O와 -O/X의 구조의 불확실감의 비율(.47)보다 훨씬 더 작았으며, 균형반응의 비율도 각각 .81과 .31이었다. 또한 두 개의 -구조와 한 개의 -구조 사이에는 균형반응의 비율들과 불확실감의 반응비율들이 매우 비슷하였다. P/X관계의 예언이유들에서 균형요인의 영향은 P/O관계의 예언에서 처럼 ++구조(.26)가 --구조(.18)보다 더 컸다. 그리고 두 개의 -구조와 한 개의 -구조에 대해 균형요인의 영향은 비슷하였다. 따라서 P/X관계의 예언에서도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P/O관계의 예언에서 처럼, 두 개의 -구조에서 무관심의 요인(.08)이 나타났다. 또한 정

〈 표 1 〉 P/O 관계의 예언방향들과 예언이유들의 비율들 (N = 72)

	부 분 구 조			
	+ P/X	- P/X	+ P/X	- P/X
	+ O/X	- O/X	- O/X	+ O/X
예언방향 :				
正	.68	.29	.11	.06
負	.03	.19	.29	.36
不確實	.29	.51	.60	.58
χ^2	46.26 ***	11.61 **	26.06 ***	27.48 ***
예언이유(a) :				
(1) 첫번째 관계 (P/X)	.26	.19	.14	.24
(2) 두번째 관계 (O/X)	.06	.06	.10	.08
(3) 균 형	.39	.22	.22	.21
(4) 정보부족(b)	.12	.18	.17	.25
(5) 의견차이 가능	.10	.15	.32	.21
(6) 싫어하는 것에 관심없음	.00	.08	.01	.01
(7) 무반응	.04	.11	.04	.00
(8) 기 타	.03	.03	.00	.01
χ^2	37.71 ***	8.42 NS	19.01 **	17.88 **

** P < .01

*** P < .001

(a) 표 1, 2 및 3의 χ^2 의 계산에서 (6), (7) 및 (8) 범주들은 합쳐졌음.

(b) 4와 5의 범주들에는 주로 예언방향이 불확실하였던 피험자들의 반응들이었음. 또한 (4)번 이하의 범주들은 피험자들이 기입하였던 이유들을 분석한 것임.

보부족과 의견차이의 가능성 요인들이 균형요인과 거의 비슷하게 작용되고 있었다.

O/X 관계의 예언에서, 표 3 과 같이 +P/O와 +P/X의 구조의 불확실감의 비율(.40)은 -P/O와 -P/X의 구조의 불확실감의 비율(.58) 보다 더 작았으며, 균형반응의 비율도 각각 .60 과 .15 이었다. 또한 두 개의 -구조와 한 개의 -구조의 균형반응의 비율과 불확실감 반응의 비율은 P/O 관계와 P/X 관계의 예언에서 처럼 매우 비슷하였다. O/X 관계의 예언에서 불확실감의 비율(.40)은 P/O 관계의 예언(.29)과 P/X 관계의 예언(.19) 보다 훨씬 더 컸다. 이는 다른 두 관계들 보다 O/X 관계가 P에 대해서 간접적 관계인 테에 기인되었을 것이다. O/X 관계의 예언이유들에서, 균형요인의 영향은 ++구조(.25)와 --구조(.24)가 비슷하였으며, 다른 구조들도

〈 표 2 〉 P/X관계의 예언방향들과 예언이유들의 비율들 (N = 72)

	부 부 구 조			
	+P/O +O/X	-P/O -O/X	+P/O -O/X	-P/O +O/X
예언방향 :				
正	.81	.31	.15	.14
負	.00	.22	.39	.36
不確實	.19	.47	.46	.50
χ^2	76.45 ***	6.99 *	10.34 **	14.32 ***
예언이유				
(1) 첫번째 관계 (P/O)	.43	.18	.18	.28
(2) 두번째 관계 (O/X)	.11	.17	.21	.14
(3) 균 형	.26	.18	.22	.15
(4) 정보부족	.10	.15	.18	.17
(5) 의견차이 가능	.06	.10	.11	.11
(6) 싫어하는 것에 관심없음	.00	.08	.00	.01
(7) 무응답	.04	.14	.11	.14
(8) 기 타	.00	.00	.01	.00
χ^2	49.72 ***	3.68 NS	4.36 NS	7.18 NS

* P < .05

** P < .01

*** P < .001

이 구조들과 비슷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두 종류의 자료에서 지지되었다.

P/O, P/X 및 O/X 관계들의 예언방향들과 예언이유들을 통합한 것이 표 4이다. 예언방향들에서, ++구조의 균형반응 비율(.70)은 --구조의 균형반응 비율(.25)보다 훨씬 더 컸다. +-구조(.35)와 -+구조(.33)의 균형반응 비율들은 --구조(.25)의 균형반응 비율보다 더 컸다. 따라서, 균형반응의 비율들의 측면에서, -관계의 수가 클수록 불균형된 예언들이 많았다. 불확실감 반응은 ++구조가 다른 구조들보다 훨씬 더 작았다. 예언이유들에서, 균형요인의 영향은 ++구조들(.30)이 가장 컸고, --구조들(.21), +-구조들(.22) 및 -+구조들(.17)에 대해서 비슷하였다. 예언이유들에서 P/O, P/X 및 O/X 관계들의 각각의 영향은 표 4의 하부에 제시되었으며, 각 관계의 비율들의 평균은 P/O관계(.21), P/X관계(.18) 및 O/X관계(.12)의

〈 표 3 〉 O/X관계의 예언방향들과 예언이유들의 비율들 (N = 72)

	부 분 구 조			
	+ P/O + P/X	- P/O - P/X	+ P/O - P/X	- P/O + P/X
예언방향 :				
正	.60	.15	.07	.08
負	.00	.26	.38	.28
不確實	.40	.58	.56	.64
χ^2	40.06 ***	21.53 ***	26.18 ***	34.38 ***
예언이유 :				
(1) 첫번째 관계 (P/O)	.24	.14	.04	.18
(2) 두번째 관계 (P/X)	.11	.12	.22	.14
(3) 균 형	.25	.24	.22	.15
(4) 정보부족	.14	.18	.19	.19
(5) 의견차이 가능	.17	.21	.25	.21
(6) 싫어하는 것에 관심없음	.00	.01	.00	.03
(7) 무반응	.08	.10	.07	.07
(8) 기 타	.01	.00	.00	.03
χ^2	9.29 NS	5.26 NS	16.80 **	2.31 NS

** P < .01

*** P < .001

순이었다. 따라서 피험자들은 세 관계들 중에서 P/O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P/O, P/X 및 O/X 관계들의 예언에서 전체 부분구조들에 대한, 균형, 불균형 및 불확실감의 반응들의 비율들에 대한 순위는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균형반응들의 순위에서, ++의 구조들은 모두 1, 2, 3 순위들이었고, -- 구조들의 평균 순위는 9.8이었고 +-와 -+ 구조들의 평균 순위는 7.1이었다. 따라서 균형반응의 순위는 -관계가 많을수록 낮아지고 있다. 불균형 반응들의 순위는 ++구조들이 가장 낮고 -- 구조들이 가장 크며 +-나 -+ 구조들은 중간이어서 균형반응들과 정반대의 경향을 나타냈다. 불확실감반응들의 비율들의 순위는 ++ 구조들이 10, 11 및 12의 순위로서 가장 낮았고 -- 구조들의 평균 순위(5.8)는 +-와 -+ 구조들의 평균순위(4.6)보다 더 낮았다. 12개의 전체 부분구조들에 대한 균형반응, 불균형반응 및 불확실감반응의 비율들의 순위들 간의 Spearman 상관계수는 균형반응과 불균형

〈표 4〉 P/O, P/X 및 O/X 관계들의 예언방향들과 예언이유들의 비율들의 통합 (N = 72)

	부 분 구 조			
	+	-	+	-
	+	-	-	+
예언방향 :				
正	.70	.25	.11	.09
負	.01	.22	.35	.33
不確實	.29	.52	.54	.57
예언이유 :				
(1) 첫번째 관계	.31	.17	.12	.23
(2) 두번째 관계	.09	.12	.18	.12
(3) 균 형	.30	.21	.22	.17
(4) 정보부족	.12	.17	.18	.20
(5) 의견차이 가능	.11	.15	.23	.18
(6) 싫어하는 것에 관심없음	.00	.06	.00	.02
(7) 무반응	.05	.12	.07	.07
(8) 기 타	.01	.01	.00	.00
P/O 관계 (a)	.34	.16	.11	.23
P/X 관계	.18	.16	.18	.19
O/X 관계	.08	.12	.16	.11

(a) 첫번째 관계와 두번째 관계를 P/O, P/X 및 O/X 관계들로 재분류한 것임.

반응 사이에서 -0.72 이었고, 균형반응과 불확실감반응 사이에서 -0.85 이었으며, 불균형반응과 불확실감반응 사이에서 0.38 이었다. Fuller(1974)의 자료들보다도 본 연구의 자료는 균형반응들의 비율들이 훨씬 더 적어진 반면에 (12개 중의 10개 부분구조들이 더 적음), 불확실감반응들이 더 많았다(12개 구조들 중의 4개 구조들이 0.10 이상 많았음).

論 議

삼원관계들에 대한 예언반응들은 P/O, P/X 및 O/X 관계들에 대해서 두 개의 + 구조들에서 가장 큰 균형효과를 보였고, 두 개의 - 구조들과 한 개의 - 구조들에서 서로 비슷하게 낮은 균형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불확실감반응에 대해서도 비슷하였다. 또한 균형효과는 피험자들의 예언이유들에 대한 반응들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추세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 관계가

〈표 5〉 P/O, P/X 및 O/X 관계들의 예언방향들의 비율들에 기초된
균형, 불균형 및 불확실감 정도의 순위들

예언된 관계들과 부분구조들	균 형	불균형	불확실감
P/O 관계			
+ P/X, + O/X	.68(2)	.03(10)	.29(11)
- P/X, - O/X	.29(9.5)	.19(3)	.51(6)
+ P/X, - O/X	.29(9.5)	.11(6)	.60(2)
- P/X, + O/X	.36(6.5)	.06(9)	.58(3.5)
P/X 관계			
+ P/O, + O/X	.81(1)	.00(11.5)	.19(12)
- P/O, - O/X	.31(8)	.22(2)	.47(8)
+ P/O, - O/X	.39(4)	.15(4)	.46(9)
- P/O, + O/X	.36(6.5)	.14(5)	.50(7)
O/X 관계			
+ P/O, + P/X	.60(3)	.00(11.5)	.40(10)
- P/O, - P/X	.15(12)	.26(1)	.58(3.5)
+ P/O, - P/X	.38(5)	.07(8)	.56(5)
- P/O, + P/X	.28(11)	.08(7)	.64(1)

본래 불쾌하고 회피반응이나 무관심을 이르기며, $-+$ 나 $+-$ 의 구조들이 $-$ 관계에 기인된 회피와 무관심과 두 誘引價들 간의 같등에 기인된 회피와 무관심을 일으킨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해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분구조들의 완성에 있어서 균형요인 이외의 요인들의 작용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피험자들이 예언의 이유들로서 제시한 균형요인의 비율은 .39에서 .15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피험자들은 균형요인 이외에도 부분구조들의 각 관계의 부호에 주목하고 있으며, 실제 상황에서의 사람들 간의 의견차이의 가능성을 고려하며, 정보부족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분구조들에서의 예언이 삼원관계들의 평정들에서 작용되는 P/O 관계의 긍정도, 태도의 일치도 및 대인적 같등이나 균형효과의 영향들을 마찬가지로 받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표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피험자들은 삼원관계들의 예언에서 P/O, P/X 및 O/X 관계들을 별개로서 고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균형효과 이외의 각 관계의 긍정도(positivity)의 효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에서는 각 관계의 正負에 기인되는 반응의 성질들을 주로 고

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는 삼원관계들의 유쾌도나 안정도의 평정들에서 발견된 긍정도와 태도일치도의 요인의 면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평정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에서 발견된 P/O관계의 긍정도는 본 연구의 가정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즉, + 관계는 그 자체 유쾌하고 관심을 유발하며, - 관계는 불쾌하고 무관심이나 불확실감을 유발한다고 가정될 수 있다. 한편, 태도의 일치도에도 동일한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 태도일치의 상황은 보수를 제공하는 상황으로서 유쾌하고 관심을 일으키며, 태도불일치의 상황은 불쾌하고 회피와 무관심이나 불확실감을 유발한다고 가정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부분구조들에 적용할 때, ++의 상황은 P/O관계의 긍정성과 태도일치의 상황을 함축할 것이고, --의 상황은 P/O관계의 부정성과 태도일치나 태도불일치를 함축할 것이며, +-나 -+ 상황들은 P/O관계의 긍정성과 태도일치나 불일치 또는 부정성과 태도일치나 불일치의 상황을 함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두 개의 +의 부분구조들을 제외한 부분구조들은 모두 접근과 회피의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모순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들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부적 관계에 대한 회피나 무관심은 피험자들이 제시한 예언이유들에서 직접 나타나고 있다. P/O관계와 P/X관계의 예언들에서 각각 .08의 비율이 -- 구조들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Newcomb (1968)의 -P/O관계의 상황들에 대한 무관심이나 非均衡의 주장을 직접 지지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비록 이러한 무관심이나 불확실감이 -P/O관계의 상황들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겠지만, -P/X관계나 -O/X관계의 상황들에서도 작용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적 관계들에서의 무관심이나 불확실감을 증감시키는 요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러한 요인들에는 관계의 강도, 접촉의 강요성이나 필요성, 개인적 중요성 등이 포함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삼원관계 중의 부분구조들이 최소의 정보상황이라는 점을 주목해야만 된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 부분구조들의 완성에서 .19에서 .64에 이르는 비율들이 불확실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큰 범위의 불확실감의 비율들은 미완성된 관계들의 예언에 있어서 균형효과에 한정된 분석의 부적절성을 강력하게 지적해 주고 있다.

參 考 文 獻

金智煥(1983). 他人에 대한 好惡 強度가 三元的 關係의 愉快度 知覺에 미치는 影響.
成均館大學校 學生指導研究 5 80 ~ 91.

- 장영수. 가상적 사회 상황에서 삼자관계의 지각과 친애욕구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碩士學位請求論文, 1984.
- 洪大植(1980). 他人과 對象의 호오강도가 三者關係의 知覺에 미치는 影響.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請求論文(a).
- 洪大植(1980). 他人에 대한 好惡強度가 三者關係의 知覺에 미치는 影響. 韓國心理學會誌 3, 19 ~ 27 (b).
- 洪大植(1982). 對人關係의 均衡에 대한 새로운 理論의 接近. 社會心理學研究, 1, 44 ~ 77.
- 洪大植(1984). 評價에서의 負의 情報優越 效果에 관한 傾斜差異 模型. 社會心理學研究, 2, 133 ~ 173.
- 洪大植(1985). 三元的 社會關係에서의 認知的·感情的 反應의 力學과 對人關係의 過程. 社會心理學研究, 2, 61 ~ 93.
- Abelson, R. P., & Rosenberg, M. J. (1958). Symbolic psycho-logic : A model of attitudinal cognition. *Behavioral Science*, 3, 1-13.
- Aderman, D. (1969). Effects of anticipating future interaction on the preference for balanc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 214-219.
- Cartwright, D., & Harary, F. (1956). Structural balance : A generalization of Heider's theory. *Psychological Review*, 53, 277-293.
- Crano, W. D., & Cooper, R. E. (1973). Examination of Newcomb's extension of structural balance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344-353.
- Crockett, W. H. (1982). Balance, agreement, and positivity in the cognition of small group structure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5, New York : Academic Press.
- Desoto, C. B., & Kuethe, J. L. (1959). Subjective probabilities of interpersonal relation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90-294.
- Feather, N. T. (1967). A structural balance approach to the analysis of communication effects.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 New York : Academic Press.
- Fuller, C. H. (1974). Comparisons of two experimental paradigms as tests of Heider's balance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802-806
- Granberg, D., & Brent, E. E. (1974). Dove-hawk placements in the 1968 election : Application of social judgment and balance the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687-695.
- Heider, F. (1946). Attitude and cognitive organization. *Journal of Psychology*, 21,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 Wiley.
- Insko, C. A., Songer, E., & McGarvey, W. (1974). Balance, positivity and agreement in the Jordan's paradigm : A defense of balance theor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53-83.
- Jordan, N. (1953). Behavioral forces that are a function of attitudes and cognitive organizations. *Human Relations*, 6, 273-278.
- Newcomb, T. M. (1968). Interpersonal balance. In R. P. Abelson et al.(Eds.), *Theories of cognitive consistency : A sourcebook*. Chicago : Rand McNally.
- Newcomb T. M (1971). Dyadic balance as a source of clues about interpersonal attraction. In B. I. Murstein(Ed.), *Theories of attraction and love*.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Newcomb, T. M. (1978). The acquaintance process : Looking mainly backwar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075-1083.
- Ohashi, M. (1964). Sociometric choice behavior and interpersonal perception in triad.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6, 72-87.
- Price, K. O., Harburg, E., & Newcomb, T. M. (1966). Psychological balance in situations of negative interperson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265-270.
- Rodrigues, A. (1967). Effects of balance, positivity, and agreement in triadic social 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72-476.
- Wellens, A. R., & Thistlethwaite, D. L. (1971a). An analysis of two quantitative theories of cognitive balance. *Psychological Review*, 78, 141-150.
- Wellens, H. R., & Thistlethwaite, D. L. (1971b). Comparison of three theories of cognitive bal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 82-92.
- Wiest, W. M.(1965). A quantitative extension of Heider's theory of cognitive balance applied to interpersonal perception and self-esteem. *Psychological Monographs*, 79, No. 40

ABSTRACT

Balancing Effect, Uncertainty and Perceived Reasons in the Prediction of Missing Relations in the P-O-X Triads.

Hong, Dae-Shik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Balance theory of predictions of missing relation in the triadic relations was revised and tested. It was assumed that positive and negative relation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 psychological properties.

The hypothesis of present study was as follows: partial structures containing two positive relations will elicit approach and involvement responses, and therefore, will elicit the greatest balance effect and the least uncertainty. Partial structures containing more than one negative relations will elicit avoidance, noninvolvement and conflict, and therefore, will elicit similar small balance effect and great uncertainty.

The predictions of P/O, P/X and O/X relations supported the hypothesis. The reported reasons of predictions also supported the hypothesis. Subjects also attended to P/O, P/X and O/X relations in addition to the balance of the situations and felt uncertainty by the lack of further information and possibility of attitude differences between P and O.

In the reported reasons of predictions, the proportions of the balance effect ranged from .39 to .15. It was suggested that concept of Newcomb's nonbalance should be generalized to the P/X and O/X relations. The necessity of analysis of uncertainty in the prediction of the missing relations was emphasized.